

[대선 특집]

“구태정치 끝나고 사회 재창조 할 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인터뷰 신항락 편집국장

광주일보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서울 무교동 동아빌딩 9층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가칭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선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문 후보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금융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일보 신항락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을 '과거 개발독재시 경제'로 돌아붙이는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인터뷰는 약 한시간동안 진행됐다. 문 후보가 밝힌 정책 비전과 범여권 후보단일화 등 각종 정치적 입장을 정리한다.

— 문 후보에 대한 관심이 호남지역에서도 높다.

▲호남에 친구들이 많다. 민주화 동지도 많고.

— 자신이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정치로부터의 단절이 중요하다. 부패·비리정치, 무능·무책임 정치를 척결하고 새로운 창조 정치를 열어가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부패와 비리, 정경유착이란 사슬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세력이 견제해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바로 그 세력을 이어받고 있거나 지속하고 있는 정치세력이다.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의혹으로 덮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아닌가, 명백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여권은 어떤가. 남북관계 문제 등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지난 5년간 부동산가격 폭등, 청년실업 확대, 비정규직 양산, 빈부격차의 확대 등 시민이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여권의 어느 인사 하나 이에 책임지겠다는 이가 없다.

급년 초부터 이런 구태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담당해낼 수 있는 적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 내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사회지도층으로서 부패하

여권 누구하나 서민 고통 책임 지려고 안해

이명박 후보 80년대 비리경제 몸엔 밴 사람

고 무능·무책임한 정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실직가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국제적 활동을 하면서 UN, 다보스 포럼 등에서 논의되는 세계적 흐름에 대한민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 국가경쟁에 대한 비전을 보여 달라.

▲한국 재창조를 이끌겠다. 현재 한국의 현실은 55%가 비정규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중소기업은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놓여 있다. 또 부패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장하면서 연간 예산을 55조원 쓰고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나마도 자기 상가의 고도제한이나 푸는 사람,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당의 후보가 될 정도로 사회가 썩어 있다.

우리 사회의 재창조를 위해서는 정경유착

을 줄여야 한다. 건설부정 70조원과 대우하 비용을 포함해 80조~90조원을 교육투자에 쏟았다. 그러면 5년 내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세계 1위가 된다. 사교육비 30조~40조원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인구를 하자는 것이다.

—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대책을 제시한다면.

▲아직도 부패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를 일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소수만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심각한 구직난, 빈부 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여기에 기술력으로 무장한 미국과 일본, 저임금을 바탕으로 날로 기술력을 높여가는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제의 처방을 바꿔야 한다.

우선 부패가 추방되어야 한다. 부패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적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가로막는 적이다. 경제정책, 기업 경영에서 부패를 추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규칙을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을 버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 만들기 성장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부패 추방으로 마련된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연계시켜 나가면 우리도 독일, 일본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5년내 일자리 500만개 창출·8% 성장

부패 없애지 않으면 경제 성장 불가능

나갈 수 있다.

—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는 기업전문경영인으로 이른바 성공한 사람이다. 유한킴벌리 크라이리라는 세계적 기업에서 15억5천만 달러 인구를 가진 북아시아 회장을 했고 여러 방면에서 사회 활동을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는 두달 밖에 안 됐지만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수십년 간 닦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한국의 어려움을 극복해갈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 먼저 말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 주목했고 국민 여론이 나를 불러낸 것이다.

—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다르다는 비판이 있다.

▲나는 단순히 일개 기업만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해왔다. 농촌 살리기, 반부패운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기, 숲 가꾸기 등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 정부도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선도적으로 해왔다. 일반 정치인들처럼 말로가 아니라 기업경영에서부터 부정부패 척결 행동을 실천해온 사람이다. 사회 각 분야와 국제사회에서도 나의역량을 알아주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 행정 경험이 없는데.

▲이명박 후보는 자기 선거를 위해 일기 내에 공사를 마치고라 청계천을 어떻게 만들었다. 자신의 서초동 법조타운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행정경험이 뭐가 중요한가. 아파트값을 그렇게 올려놓으면서

도 원가공가에 반대하는 그런 경험으로 무엇을 하나. 부패·무능 경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기업에서 33년 동안 유한회사를 경영했고 세계 경제인·지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또 유한킴벌리 클락의 북아시아 회장으로서 아시아의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우리간산 푸르게 운동과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을 벌여 13만 명의 일자리를 기업 밖에서 만들었다. 3천 500개의 학교 숲도 만들었다. 정부가 해도 수십년 걸릴 일이다. 더 이상의 능력 검증이 뭐가 필요한가. 나는 내 스스로 검증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정치인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다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 검증청문회를 스스로 개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각각 평가한다면.

▲그들(한나라당)은 권력을 잃은 10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뤘다.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정보화 강국이 되었고 산업에서도 반도체, 선박 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그동안 빈부격차의 확대, 청년실업의 양산, 비정규직의 양산, 카드대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서민을 어렵게 만든 정책 실재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그동안 그들이 군사독재 세력과 손잡고 30년간 누렸던 배타적 정치권력을 잃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경제' 이슈를 선점해 지지율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그 원인은 뭔가.

▲이 후보에 대해 일반 국민이 환상을 갖고 있거나 일시적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장사는 잘 안 되고, 기업하기 힘들고, 집 사기가 어려운 게 오늘 우리 국민의 실정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적 출신 없는 현 정치권에서 내키지 않는 맘으로 선택한 것이 이명박 후보 아닌가. 이 후보는 자신 스스로도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며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시인한 사람이다. 즉 이 후보는 80년대 정경유착, 부패 비리 경제가 몸에 밴 사람이다. 현 정치권의 무능으로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자신과 주변이 부패와 비리의혹에 싸인 인물이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태국의 수상이 자신과 가족의 처분 일삼다 쫓겨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5면에 계속)



가칭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가 28일 주말을 맞아 서울 인사동을 찾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시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062)220-0524
☎직통:(062)227-9600
☎FAX:227-9500

법인면허 양도·양수 공고

케이엔케이종합건설(주) (갑)과 대양종합전기(주) (을)은 서기2007. 10. 26일 각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는 바에 이의 공고함.

2007년 10월 26일
"갑" 케이엔케이 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89-24번지
대표이사 김영숙
"을" 대양종합전기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명성리 684-1
대표이사 김일주

산행안내

10월 30일(화)
▲팔성산악회 협찬 매쉬신 레인샤 10월 30일(화) 07시 40분 풍림중(태안로터리, 건강관리원회, 문이원관 추모경유)출발 ▶다들기해:관정관 팽 T.011-605-3477
▲영주산악회 영남야프스 등반산, 제약산 10월 30일(화) 07시 여주채 육관(동해관광투어)출발 ▶신촌애약원수 T.011-608-2208

10월 31일(수)
▲청곡산악회 부산 장신 테마여행 10월 31일(수) 07시 광주교원공회회관 약 출발 T.010-6660-5665
▲광주이대산악회 보은구 구평산 신선대 10월 31일(수) 07시 동아병원(동해관광투어)출발 ▶다들기해:대대산악회 T.011 609 0588
▲광주목요산악회 실아산, 제4봉길경야 1박2일 10월 31일(수) 08시 광주역약 출발 T.011-9601-8258, 011-441-8845

11월 1일(목)
▲광곡산악회 남장골-백암사 난공산행 11월 1일(목) 08시 대인광장(선평회관)출발 T.011 627 6603
▲광주한국산악회 충북 보은 구평산(충북야프스) 11월 1일(목) 07시 여주채육관(동해관광투어)출발 T.011-615-2279
▲가고파산악회 강원도 태마산행 1박2일 11월 1일(목) 07시 광주역(전원동해대)출발 T.011-629-2678, 011-601-8238

11월 3일(토)
▲팔성산악회 서문도 막도 능백취 대 수역산행 11월 3일(토) 06시 30분 백운로터리 분상관정약 출발 ▶다음카페:관정관 팽 T.011-605-3177
▲광주도요산악회 남원 지리산 만북대 11월 3일(토) 08시 광주역 http://cafe.daum.net/gwangjudo T.011-608-4267, 011-634-2044

11월 4일(일)
▲빛고을외오름회 지리산 노수단-피아골 단풍산행 11월 4일(일) 07시 10분 연주채육관(광주역)출발 ▶동광주출발 T.011-609-7159, 010-6601-9774
▲대한산악회(광주)영남야프스 별유선-대화산 11월 4일(일) 06시 25분 해남해마드(연주채육관, 동해관광투어)출발 T.010-9445-9894
▲광주한빛산악회 지리산 피아골 계곡단풍산행 11월 4일(일) 07시 30분 광주역(광주)출발 ▶다음카페:광주한빛산악회 http://cafe.daum.net/062hanvit T.010-3131-3590
▲올타리산악회 전북 무주 적상산 11월 4일(일) 08시 백운동국제호텔 앞(문예회관, 은병원, KT점)출발 ▶다음카페:광주올타리산악회 T.010-5600-3598
▲광주보라미산악회 충북 보은구, 강북 상수근 소리산 11월 4일(일) 07시 광주역(은병원, 유곡리)출발

발 ▶다음카페:광주보라미산악회 T.011-645-7796
▲광주한미산악회 충북 속리산 단풍산행 11월 4일(일) 06시 30분 광주역(광주)출발 ▶다음카페:광주한미산악회 http://cafe.daum.net/onemindalpinedub T.010-7172-3890
▲거북아미산악회 영남 원출산 11월 4일(일) 07시 30분 현대백화점(동해관광투어)출발 T.011-604-3951, 011-624-2181
▲전남산악회 과천 약해봉 등기산 11월 4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0 9776 3630, 011 642 5197
▲광주한길산악회 지리산 천화봉 11월 4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http://cafe.empss.com/bangil T.222-3253, 010 7619 0559
▲요산회 전남 임업선, 태영선 11월 4일(일) 07시 30분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무등산악회 내장산, 백암산 11월 4일(일) 08시 롯데백화점 정문(여원)등은명원경유)출발 T.011-602-6278
▲광주우뚱회 경남 하동 주산-천중대고사 11월 4일(일) 08시 대인광장(여주채육관, 동해관광투어)출발 T.011-9600-5364, 019 656 9498
▲광주세무등산악회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현산 성태산 11월 4일(일) 07시 30분 대인광장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호남산악회 광주 선선봉 배재봉 11월 4일(일) 07시 30분 광주역광장, 동해관광투어)출발 ▶다음카페:광주호남산악회 T.010-6246-7231, 011-605-5034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 / 집 / 대 / 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회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미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우 무등고시화원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순천 교육장소 매곡동 북부정류장 동성컴퓨터학원 2층
문의 : (062)434-7857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